

JK 챔버 오케스트라 '영화를 만난 클래식' 리뷰

# 영화음악의 본질 꿰뚫다...음악힐링 선사



JK챔버 오케스트라는 7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 12회 정기연주회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를 만난 클래식' 공연을 가졌다.

관객들은 마음을 힐링하고 추억속 시간 여행을 떠났다. 7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서 열린 제 12회 JK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를 만난 클래식' 공연이었다.

〈사운드 오브 뮤직〉〈플래툰〉〈아웃 오브 아프리카〉〈대부〉〈시네마천국〉 등 이날 레퍼토리 12곡도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스테디셀러 영화인자라 멜로디가 친숙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네 번째 곡인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부터였다. 현악기가 대부분인 챔버 오케스트라라 영화 음악이 전하는 장중한 맛은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햇살 따가운 정원에 홀로앉아 죽음을 맞는 주인공의 무상하고 쓸쓸한 인생 마지막이 우리의 머릿속에 오버랩 될만큼 잔잔하고 감미로웠다. 그 달콤하고 로맨틱한 감동은 아프리카 상공을 비행하던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의 잠자리 비행기 위로 흐르던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K622번'으로 이어졌다. 아이러니 하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는 모차르트가 가장 고통스런 시절에 작곡했다고 한다. 정말 고통속에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만큼 이 곡은 평화롭고 서정적이며 우아하다. 생애 최악의 시절에 천재는 자신의 천재성을 더 빛나게 하듯이 말이다. 특히 미국과 독일 등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최고연주자과정 을 마친 김범 현 경기필하모니 차석의 기를기쁜 담백한 음색은 영화의 장면을 금방 떠올리게 만들어 주었다.

대전예술의전당 오보편 관장의 재치있는 해설도 공연의 재미를 쏠쏠하게 했다. 오 관장은 김범 클라리넷 연주자가 무대에서 퇴장 한 후 "친구들중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 권해달라는 문이 오는데 클라리넷을 많이 권합니다. 악기값이 저렴해서죠. 여기 지금 무대에 있는 것중 가장 싼니다"라고 말하자 객석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온다. 이어 오 관장은 "하지만 악

기의 음색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번 음악회는 한 달 전부터 기다려졌다. 그 이유중 하나는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때문이다. 지난번 공연서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을 훌륭히 연주한 그의 현란한 개인기에 중독 돼서다. 특히 이번 레퍼토리에 파가니니의 대표 작품 6곡중 제 3번인 <라 캄파넬라>가 들어 있었다. 권혁주는 세계에서 파가니니 작품을 가장 잘 연주하는 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2004년 러시아 파가니니 콩쿠르서 우승한 이력의 소유자다.

## 실내악의 '팔색조 매력' 선사

권혁주, 파가니니 연주 돋보여

장준미 떨어진 것은 아쉬움

JK 챔버 음악적 성량 '크레센도'

권혁주의 연주에 앞서 오보편 해설자는 "아마도 18세기 후반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기교로 고난도 기법을 능숙히 소화해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린 파가니니가 환생해 권혁주와 맞붙어도 이기기 힘들지 않을 까요?"라고 분위기를 돋우었다. 권혁주는 역시 기대에 부응했다. 아찔한 고음을 넘나들자 객석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곡이 끝나기 무섭게 들려오는 '브라보'의 환호성과 박수갈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크 페이스를 유지하는 권혁주는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는 '비르투오소(virtuoso)'의 품모가 물론 느껴졌다. 21세기 비르투오소의 이상형을 보는 듯했다. 고난도의 악절도 전혀 힘들이지 않고 소화해내는 현란한 기교, 관객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호소력 있는 표현력까지. 권혁주는 이 시대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

을 지니고 있었다.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굳이 거론치 않더라도 권혁주의 완벽에 가까운 연주 기교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에게 기교는 단지 표현의 도구일 뿐, 영혼을 울리는 현의 노래에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동이 솟아올랐다. 영화속 파가니니를 다시 만난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이 콘서트홀을 꽉 채우고도 남는 그의 에너지는 청중의 마음을 한껏 뜨겁게 했고 그 어느 때보다 열띤 분위기 속에 음악회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이날 공연에서는 '만능 재주꾼' 파가로 역을 훌륭히 소화해낸 바리톤 김재일과 우아한 소프라노 박선영의 로지아 아리아도 충분한 감동을 자아냈다.

이번 공연을 매니저먼트한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강행진 단장과의 인연 때문인지 객석에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및 대문사 주지 진오 스님을 비롯해 스님 관객들과 불교계 인사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객석에서 만난 박준영 前 국악방송 사장은 "과거에 눈물을 흘리며 감상했던 영화의 감동을 다시한번 만끽할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환희심을 표현했다.

한편 이번 연주를 맡은 JK 챔버 실내악단은 'Jewelry of Korea'의 이니셜이다. 즉 서양의 언어로 한국의 정신을 펼쳐나가는 보석같은 연주자라는 의미다. 이날 공연은 명성에 걸맞게 국내 정상급 젊은 연주자들의 훌륭한 연주와 관객들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가슴에 와 닿았다. 이처럼 매회마다 많은 열성팬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어떤 공연에서든 한결같이 최고 수준의 연주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공연 때마다 여러 취향을 지닌 관객들을 두루 만족시킬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마련한 덕택이다. JK 챔버 오케스트라는 공연을 할 때마다 음악적 성량인 '크레센도' 되고 있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 보살의 중생 구제는 실천적 휴머니즘

## 근원적 모성애 다룬 영화 '마돈나'

올해 상반기 영화계의 최고 화두는 '부성(父性)'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영화에서는 한 실형민의 삶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그린 <국제시장>이 대표적이고, 외국 영화에서는 물리학적인 상상력으로 충만한 <인터스텔라(Interstellar)>가 대표적이다. 다만, 부성애를 다룬 방식은 각기 다른 스펙트럼의 빛깔을 띠고 있다.

<국제시장>은 가족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버지라는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아버지의 자리가 국가의 위치로 환치된다는 점에서 파시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인터스텔라(Interstellar)는 아버지와 딸의 사랑을 우주적인 시공간의 휴머니즘으로 승화했다.

이번에 소개하는 신수원 감독의 <마돈나(Madonna)>는 앞서 소개한 작품들과 정반대로 모성애를 다루고 있다.

사회적 타자로서의 여성을 삶에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전형적인 여성주의(Feminism), 그중에서도 젠더(Gender) 영화에 해당한다. 간단히 줄거리를 살펴보자.

한 병원의 간호조무사 해림(서영희)과 의사 혁규(변요한)는 심장 이식이 필요한 전신마비 환자 철오를 담당하게 된다. 철오의 아들 상우(김영민)가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버지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상우가 철오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유는 철오가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10억의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철오가 죽게 되면 상우는 상속금을 받지 못한다. 철오가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런 설정이 현실적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던 중 정체불명의 사고 환자 미나(권소현)가 실려 오게 된다. 상우는 해림에게 그녀의 가족을 찾아 장기간 동의를 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상황이 어려웠던 해림은 제안을 수락하고, 미나의 과거를 밝히며 상우를 만난 해림은 한 여성의 삶과 그 상처를 위로하는 모성애이다.

영화제목인 '마돈나'는 미나의 닉네임이기도 하다. 미나가 이런 닉네임을 가진 이유는 가슴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이탈리아의 마돈나를 떠올리게 된다.



영화 '마돈나'는 미나와 해림을 통해 사회적 타자로서의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다.

“  
자신 위해 아이 버리는 어머니  
자기희생으로 아이 살리는 어머니  
미나와 해림 통해 보살사상 역설  
“생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다면  
욕망의 엔트로피 따르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타인의 얼굴'을 보라”  
”



하지만 영화 속에서 풍만한 미나의 육체가 다산성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외려 그녀는 결핍 혹은 결락의 상징적인 인물로 비쳐진다. 그 이유는 미나는 자본사회의 계급에서 하위 계층이기 때문이다. 미나에게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다. 보혈 전화상담 영업사원, 화장품 공장 공인 등 그녀의 직업은 잉여폐력 사회에서 타자적 위치에 해당한다. 이후 미나는 화장품 공장 박 기사에게서 강간을 당한 뒤 흥분가로 향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것은 영화 속 인물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영화 속에서는 서 있는 자와 무릎 꿇은 자가 있을 뿐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구강 성행위를 하는 미나와 강제로 양주를 받아 마셔야 하는 혁규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오버랩 된다.

그러나 하면, 영화 속에는 두 개의 여성성이 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아이를 버리는 어머니(해림)가 있는가 하면, 자기를 희생해서 아이를 살리는 어머니(미나)가 있다. 이 두 개의 모성은 영화 말미

에 합일하게 된다. 해림이 바닷가에 버린 가방을 미나가 열고 그 속에서 아이를 꺼내는 장면은 송고하다.

꿈속에서 해림은 미나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해림은 "왜 아이를 지우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이에 미나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자신을 아이가 사랑해줬다."고 말한다. 해림과 미나의 만남은 레비나스가 말한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처 입은 '타인의 얼굴'을 보듬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사상의 다름 아니다.

보살사상에서 중생 구제의 지향은 실천적 휴머니즘일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실천물은 6바라밀의 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에 해당할 것이다.

영화 <마돈나>는 동정심을 싸구려로 치부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욕망의 엔트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유용오 작가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도 모집합니다



- 종 정 : 해강당 석능인대종사
- 총무원장 : 대웅당 혜승

본 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근본교리와 조선불교종흥조 경허선사의 선공을 이어받은 우각도일선사 법맥으로 종지종풍을 세우고 종정 석능인대종사께서 본 종을 16년전 창종을 하여 많은 종사들이 품계를 품수하였고 품수받은 종사님들이 각 종단을 창건하는 등 불교종흥에 많은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불타 탄생지 네팔 룸비니를 무려 서른 다섯번이나 다녀오면서 한국불교위상을 널리 알리고 2년전에는 룸비니동산 마야데비사원에서 세계최초로 세계불교문화평화축제를 개최하셨습니다.

지금도 네팔, 대만, 태국, 중국 등으로 세계적인법회행사에 초빙되고 있으며 수행자들을 적극 추천하여 불교국가에서 수행 및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본 종에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종에서는 종도모집하오니 총본산에 연락을 주시면 등록하는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번지 각황사  
 행정실 | 053) 325-0400. 팩스 / 053) 325-4848. 문의 / 010-7283-0089  
 총무원 | 인천시 계양구 방죽동 80-1 불광사  
 선 원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1004-1 흥제선원

봉침교육 | 숙박휴양

##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암환자 전문 영양소  
수시 건강상담  
유기농 죽염식단

원장 천범석

황토 동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 건물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웅암리 272-27번지
- 2층 건물 한채, 한옥기와집 한채
- 대지 400평, 전 4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양로원, 요양병원  
여러가지 적합, 현재 별장으로 사용중
- 가액 : 1억 5천대출안고 3억 현찰 가능함 (조정가능)
- 위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북쪽리 874-9번지
- 2,143평 / 창고 1동
- 바닷가 바로 앞, 평당 14만원 (조정가능)
- 위치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산19번지 21-2번지, 22번지
- 세 필지 14,600평 ■ 가액 : 1억 1천만원 (조정가능)
- 사찰, 전원주택, 별장, 여러가지 과수 농장, 약초 재배도 가능

■ 상담전화 : 010-8666-6210